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

보도자료 Press Release

부산지방기상청

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배포일시	2021. 6. 1.(화) 11:00 (총 2매)	보도시점	즉시		
담당부서	부산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	담 당 자	과 장 홍 기 만 사무관 고 혜 영	전화번호	051-718-0431

부산지방기상청, 이주민 대상 여름철 다국어 위험기상서비스 첫 시도!

□ 지난해 지역 내 거주 이민자들이 언어장벽으로 인해 코로나-19 재난안전문자를 이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. 부산지방기상청은 이를 착안하여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날씨정보 이용에 취약한 이주민 맞춤형 날씨정보를 “Life In Busan” 앱과 연계하여 제공한다.

□ 부산지방기상청은 부산시, 부산국제교류재단과 협업으로 외국인, 이주민, 다문화가족 대상 위험기상정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, 부산시 공공앱인 외국인주민 생활정보 제공 모바일앱(Life In Busan)을 통해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간 여름철 위험기상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.

※ Life In Busan 앱은 부산국제교류재단에서 운영하는 외국인주민 대상 정보 제공 프로그램으로 각종 생활정보, 법률정보, 한국어 강좌 뿐만 아니라 6개국어(한·영·중·베·러·인니)로 번역된 코로나19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.

□ 주요 서비스 내용은 6개국어(한·영·중·베·러·인니)로 번역된 폭염, 열대야, 집중호우 등 여름철 위험기상정보를 모바일 앱 푸시 알람을 통해 빠르게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. 또한 기상청 영문 홈페이지 지원으로 부산 날씨정보(단기 및 중기예보)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.

□ 부산지방기상청과 부산시, 부산국제교류재단은 6월부터 이주민에게 신속·정확한 여름철 위험기상정보를 효율적으로 전파하기 위하여, 다문화가족지원센터, 주민센터 등 홍보물 제작·배포와 함께 외국인 주민 생활정보 제공 모바일앱(Life In Busan) 가입 이벤트도 온라인을 통해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.

□ 부산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장은 “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, 집중호우, 태풍 등 여름철 위험기상이 자주 발생됨에 따라 이주민을 위한 맞춤형 다국어 기상재난안전서비스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.” 라며, “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기상재해 정보를 적시에 전달하여, 기상기후정보의 사회적 활용 가치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.” 라고 밝혔다.